

退溪의 歌辭所作說 辨正**

李 東 英*

- | | |
|------------------|----------|
| I. 序 言 | 2) 相杵歌 |
| II. 退溪作으로 研究된 歌辭 | 3) 樂貧歌 |
| III. 退溪先生の 詩歌觀 | 4) 勸義指路歌 |
| IV. 諸作品의 辨正 | 5) 琴譜歌 |
| 1) 牧童問答歌 | V. 맺는말 |

I. 序 言

淳風이 죽다하니 眞實로 거룩마리
人性이 어디다하니 眞實로 울흐마리
天下에 許多英才를 소저말삼 흥가.

위의 시조는 退溪선생의 陶山十二曲 중에 前曲三이다. 英才를 소저 말 할 수 없는 것이 眞理이다. 지난날 國文學研究가 새로운 資料 발굴에 도취된 때가 있었다. 이같은 일은 연구가의 필요한 작업이기는 하나 그 새 자료가 文獻과 文學的 검토가 미비한 채로 소개됨으로써 그 誤謬가 學界에 과오를 범한 결과는 적지 아니 하였다. 여기서는 退溪선생의 所作이라고 소개되고 또한 연구된 歌辭文學 작품 7편에 대하여 그것은 모두 退溪作이 아니라는 것을 辨正코자 한다. 退溪선생의 陶山十二曲의 한 수를 음미하면서 「退溪像」을 생각해 하고자 한다. 그런데 기왕에 연구된 7편 중에서도 「還山別曲」과 「道德歌」에 대하여는 筆者의 논문이 발표 되었기에 여기서는 다섯 수만을 대상으로 作者에 대한 錯誤를 밝힐 것이다.

* 釜山大 師範大 副教授

** 1981년 11월 21일 韓國語文學會 주최인 전국발표대회(大邱)에서 그 요지를 발표한 바 있는 논문이다.

II. 退溪作으로 研究된 歌辭

지금까지 退溪作으로 研究된 歌辭 작품은 다음과 같다. 그 대표적인 예의 연구가 李家源 박사와 徐元燮(경북대) 교수이다.

- | | |
|-----|-----------------|
| 李家源 | —1. 還山別曲 |
| | —2. 道德歌(孔夫子關里歌) |
| | —3. 牧童問答歌(牧童歌) |
| | —4. 相杵歌(春杵歌) |
| 徐元燮 | —5. 樂貧歌 |
| | —6. 觀義指路歌 |
| | —7. 琴譜歌 |

등이다. 여기서 1), 2), 3), 4)번은 李家源박사가 1972년 「退溪의 詩歌文學 研究」란 論巧에서 退溪의 所作으로 연구하였고, 5), 6), 7)번은 慶北大 徐元燮교수의 연구이다.¹⁾ 그리고 諸家の 歌辭文學全集에도 등재 및 연구물에 언급되고 있다. 다만 樂貧歌를 李相寶교수는 그의 「한국가사선집」에서 李栗谷선생의 작품으로 적었다. 그러면 위의 7편의 작품이 어떤 경위로 退溪作이 되었으며 그 誤謬의 辨正을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밝혀 보이겠으나 한말로 말하자면 모두 退溪作이 아닌 것이다.

III. 退溪先生の 詩歌觀

退溪學은 退溪文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退溪의 學問은 넓으나 잡된 점이 없고,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티가 없었다. 敬과 義를 양쪽에 지니고 明과 誠을 함께 닦으며, 知와 行을 서로 어울리게 하고 動과 靜을 서로 맞게 하며, 정밀한 요소와 거친 요소를 합하고 안과 밖이 하나가 되게 하며 사물(物)과 내(我)가 일체가 되게 하고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탐구하였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眞知와 實踐이 退溪의 學問이라고 한다. 저술이 방대하고 文學과 관계되는 기록도 적지 않거니와 文學研究者로서

1) 李家源, 「退溪의 詩歌文學研究」(1972년, 退溪學研究院)

徐元燮, 「歌辭文學研究」(1978년, 螢雪出版社)

는 깊은 연구가 없다가 최근 退溪文學의 研究 論著로서 中國 淡江大學 王 甦 교수의 「退溪詩學」과 啓明大 李源周교수의 「退溪先生の 文學觀」은 천 작된 연구였음을 보았다.²⁾ 그러면 退溪가 文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詩에 대한 태도로써 鄭子中의 閑居詩에 화답한 詩에서 「詩不誤人人自誤 興來情適已難禁」(詩가 사람을 그릇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그릇되기도 한다. 흥이 일고 감정에 알맞으면 이미 詩를 안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³⁾ 여기서 「詩不誤人」(詩가 사람을 그릇치지 않는다)이라고 말한 것은 詩를 지을 만하다는 뜻이나 「人自誤」(사람이 스스로 그릇된다)는 많이 지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興來情適已難禁」은 詩를 안 지을 수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退溪는 무려 二千餘首의 詩를 지었다. 그것이 理學研究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니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文學豈可忽哉? 學文所以正心」(문학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문학 공부하는 까닭은 마음을 바로 잡는데 있다)⁴⁾라고 하였다. 여기서 「學文所以正心」이란 말에서 退溪의 文學觀을 볼 수 있다. 그 제자 李宏仲이 朱子書를 읽으려 하자 退溪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바라건대 공이 굳이 그것을 정지하고 모름지기 먼저 詩經을 읽는다면 지극히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孔子께서는 論語에서 그 아드님 鯉에게 시경의 周南과 召南 부분을 읽지 않으면, 담을 눈 앞에 마주하고 보듯이 답답하다고 하셨으며, 당나라의 문호 韓愈는 「시서를 부지런히 읽어야 남는 것이」있지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배가 공허하다」라고 하였다. 가령 공이 이 학문(朱子學)에 전심하려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어찌 詩書를 공부하지 않는 理學이 있겠는가? 원컨대 공은 이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기 바란다. 진일에 만났을 때에도 시경을 읽으라 권해 드렸는데, 이제 다시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느냐고 물으니, 이는 공의 생각에 시경을 읽는 것이 心學에 그리 절실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인 듯하다. 그래서 그것을 읽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⁵⁾

라고 하였다. 이는 「學文所以正心」이란 말의 의의를 잘 설명하고 있다. 여

2) 王 甦, 「退溪詩學」(1981년, 退溪學研究院, 李章佑 譯)

李源周, 退溪先生の 文學觀(1981년 韓國學論集 제 8집 啓大).

3) 退溪文集 卷 3

4) 退溪先生言行錄 卷 2 pp. 22-23.

5) 王 甦, 「退溪詩學」(退溪學研究院) 1981, p. 10. 「退溪全書」제 2책 권 36, 答李宏仲, p. 232.

기다가 우리 詩歌에 대한 견해를 陶山十二曲跋文에서 밝히기를 翰林別曲이 文人の 입에서 불리워졌지만 그것은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해서 君子의 숭상할 바가 못된다고 하였고, 李龍六歌가 翰林別曲보다는 낫지마는 그것도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한 實相이 적다고 지적 하였다. 그러면 退溪는 詩歌創作에서 ① 극호방탕, ② 설만회압, ③ 완세불공을 배척하였다. 때문에 陶山十二曲으로써 蕩滌鄙吝하고 感發融通케 한다고 함은 退溪가 말한 文學이 지나야 할 正心의 效用을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詩는 모름지기 規矩와 法度を 강구해야 하며, 다시 허심탄회하게 다듬어서 字句를 저울질하여 음률에 맞음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⁶⁾ 退溪의 學問이라고 하면 理學을 위주로 생각하거나 理學은 결코 文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退溪의 詩歌가 있다면 그것이 人間 退溪와 退溪學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둔다.

IV. 諸作品의 辨正

앞서 歌辭文學上 退溪作으로 研究된 歌辭가 1) 還山別曲, 2) 道德歌, 3) 牧童問答歌, 4) 相杵歌, 5) 樂貧歌, 6) 勸義指路歌, 7) 琴譜歌 등 7편이 있음을 말하였다. 이중에 還山別曲의 작자 문제는 1958년 9월 17일자 朝鮮日報에, 「道德歌의 作者와 信本」은 1978년 陶南學報 제 1집에서 각각 고찰되었다. 그 후 1980년 제23회 전국 국어국문학 발표대회 때 「道德歌」의 작자가 愼齋 周世鵬임을 확정 하였다.⁷⁾ 때문에 여기서는 상기 두 편을 제외한 다섯 편의 작품만을 들어 辨正코자 한다.

(1) 牧童問答歌

이 작품에 대한 文獻上 기록은 洪萬宗(1643~1725)의 旬五志에

6) 退溪는 林大樹(億齡)에게 다음과 같은 詩로써 詩作態度를 보이었다. 「自非聖於詩, 法度安可擬, 寧聞大賢人, 不用規矩密? 曷不少低頭, 加工鍊與律」(退溪別集 卷 1)

7) 李東英, 「歌辭文學論叢」(1979년 10월 螢雪出版社), 周世鵬과 道德歌(국어국문학, 84호, 1980. 10. 15. 국어국문학회).

「此則 休窩任有後之所製也. 公當光海朝無意於進取 作此歌以寄優 遊自適之趣 超然於禍福榮辱之門 此出於楚辭之遺意也歟」

라는 評語에서 비롯 되었다. 그후 華山書林主人 李聖儀의 소장본 「雜歌」에도 채록되어 그 말미에 역시 旬五志의 평어를 그대로 옮겨 놓았었다. 그런데 李家源박사가 1957년 「現代文學」통권 35호에 本歌를 退溪作으로 연구하였다. 그 까닭은 退溪의 八世 冢孫婦인 朴氏(?~1797)가 作者에 대한 기록이 없는 手寫本을 가지고 있었는데 順庵 安鼎福(1712~1791)의 手寫本 「雜書」第四十一冊에 실린 「牧童歌」題下에 ‘退溪’의 두 자가 明記된 것을 가지고 退溪作으로 확정 하였다. 그러면 과연 退溪作이겠는가? 筆者의 조사와 연구로서는 첫째, 이 「목동문답가」가 安東地域에서 읽혀진 작품이 아니라는 것, 둘째 安鼎福의 ‘退溪’ 두 자가 洪萬宗의 旬五志의 評語를 알지르지 못한다는 점, 셋째,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작품의 事理 및 辭意가 退溪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먼저 歌中에

- 1) 綠陽 芳草岸의 쇼덕이는 저아허야
人間榮辱을 아는다 모르는다
人生 百年이 풀긋히 이슬이라
- 2) 逆旅 乾坤이 蟬蟬 마티 나왔다가
功名도 못일우고 草木 마티 떨어지면
空山白骨이 귀아니 늦겨우냐

등등 많은 句節에서 나타나는 辭意가 退溪의 文字가 아니다. 예컨대 「人間榮辱」을 自嘆하여 人生의 삶을 「풀긋히 이슬」로써 비유를 直說했다든가 「功名도 못일우고 草木 마티 떨어지면 空山白骨이 귀아니 늦겨우냐」에 이르면 더욱 退溪의 生涯가 아닐 뿐 아니라 退溪學問의 眞知實踐이 아니다. 存養과 省察을 하나로 꿰뚫은 退溪의 學問態度를 무시하고 이 작품의 作家라면 退溪가 退溪됨의 까닭이 없다. 이말이 바로 작품을 貶下하는 뜻은 아니다. 어느 면으로든 이 「牧童問答歌」를 退溪作으로 比定할 수는 없다. 그후 金東旭·李相寶 두 분의 研究로써 볼 때 洪萬宗의 「旬五志」의 기록대로 休窩 任有後(1601~1673)의 所作임이 事理에도 맞다고 생각된다. 任

有後는 豐川任氏로서 弘文館 校理 任守正의 아들로 仁祖 4년 庭試에 급제, 仁祖 5년(1627) 丁卯胡亂 때 假注書로 斥和를 주장하였고 아우 之後가 반란을 음모하다가 배반하고 이를 大臣들에게 漏說하며 도리어 誣告로 有後의 叔父인 判書 就正과 그 아들 兄弟가 杖死되었는데 有後는 冒免하였다. 그후로 之後와는 生前 相面하지 않았다 한다. 蔚珍에서 學問을 닦다가 孝宗 때 다시 出仕하여 鍾城府使, 禮曹參判, 承旨, 都承旨, 戶曹參判 등을 역임하고 慶州府尹을 하였다.

旬五志를 쓴 于海 洪萬宗(1643~1725)과 任有後와의 관계는 親分이 두터운 사이였다. 그의 「牧童問答歌」에 대한 評語말고도 친분 관계의 기록이 다음과 같다.

나는 아무런 재주도 없으면서 여러 宗匠들의 許與함을 지나치게 입었다. 鄭東溟, 任休窩, 金栢谷, 洪晚洲 같은 분은 나와 함께 연치가 현저히 틀리는 데도 좌석을 같이하고 아무런 간격이 없이 지냈다. 또 대양 佳辰이나 名節을 당하게 되면 좋은 술자리를 만들고 함께 찬서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한탄 해어진 뒤로는 거리에 나가 봐도 고독하기만 하고, 집 안에 들어와봐도 쓸쓸하기만 해서 마치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과 같았다. 그러던 것이 甲寅年 가을에 우연하게도 晚洲가 서울에 올라왔다가 나를 찾아주었다. 서로 대례 앉아 지난날의 感舊之懷를 이야기한 다음 그는 나에게 律詩 한 편을 주었다. 晚洲는 나에게 和答하라고 했다.

「余以不才遇蒙諸宗匠所推許 如鄭東溟任休窩金栢谷洪晚洲 諸公雖與余年輩相懸而諸待之不設閼闕 每與佳辰令節未嘗不以詩酒見招也…甲寅秋洪晚洲偶上洛 訪余相對感舊 贈余一律曰, 〈詩, 생략〉 晚洲仍屬余和之以呈以…⁸⁾」

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洪晚洲의 詩句中에 「波瀾浩蕩任公筆」이란 지적은 任有後의 品性이기도 하고 筆致·文致에 통하는 一點이다. 旬五志는 肅宗 4년(1678)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考證들이 직접적일 수도 있다. 洪萬宗이 博學強記하고 詩를 잘 했으며 「歷代總目」·「旬五志」·「冥業志譜」·「小華詩評」·「詩話叢林」·「海東異蹟」의 著作者로서 또한 任有後 당시의 사람으로서 錯誤될 수 없는 일이다. 李聖儀의 소장 「雜歌本」의 原典이 어떤

8) 洪萬宗: 「旬五志」 下卷(乙酉文庫本, 1974년, p. 279)

것인지 알 수 없으나 安順庵의 '退溪'의 〈두 가는 글자(細筆)〉로서 전기한 文獻書의 기록을 능가할 수 없고 거듭 강조하거니와 事理와 어휘들이 退溪다운 것이 아니다.

金東旭박사가 雜歌本과 李家源本을 비교해 보인 것에서도 雜歌本이 양이 많고 李家源本이 脫句가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하여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 牧童問答歌는 重厚君子의 叙懷라고 보기보다는 雄志가 소용도리치고 있는 李朝士人の 榮辱에 대한 自問自答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이 問答歌를 통하여 分裂된 李朝士人の 自意識을 엿볼 수 있다⁹⁾고 지적 하였다. 다음 이 작품의 結詞에는

- 3) 長安이 어디메오 구름이 머흐레라
山光이 어두오니 夕陽이 거의로다
功名을 귀아더냐 富貴을 내물래라
되롱이 추혀입고 洞簫를 빗기잡아
쇠등에 의오타고 杏花村을 향하노라.

라고 하였다. 洪萬宗의 評語에서 「優遊自適之趣」와 「此出於楚辭之遺意也歟」라 比擬하였지만 이 작품에는 客氣가 넘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結詞에서 「되롱이 추혀입고/통소를 빗기잡아/쇠등에 의오타고/杏花村을 향하노라」에서도 느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功名을 귀아더냐 富貴을 내물래라」의 詩句야말로 退溪의 詩教와 文學觀 나아가서는 退溪學에서 배격되는 정신이다. 지금까지 본가 작자의 是非에 있어서 誤字를 따지고, 退溪보다 二百年後의 사람인 安順福의 기록인지 아닌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우스러운 일이다. 실로 退溪의 所作이라면 先生의 언급이 있을 것이고 門人の 言行錄에도 一言半句가 있어야 할 일이다. 어찌 退溪(退溪와 作品 관계)를 믿지 않고 安順庵을 믿는다는 말인가?

(2) 相杵歌(一名, 春杵歌)

이 「相杵歌」는 일명 「春杵歌」라고도 한다. 즉 「방아노리」로서 본가는 松

9)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續編)」(宣明文化社, 1975), p. 295.

桂煙月翁의 「古今歌曲」중에 실렸던 것을 前問恭作이 「校註歌曲集」에 轉載하였다. 그리고 異寫本이 「雜歌」중, 「春杵歌」로서 52구가 등재되어 그 끝에 小跋이 있는데 「此退溪先生之所製 蓋寓意天然 詞旨切實而警世 亦且深矣」라고 하였다. 이 작품을 李家源박사가 退溪作으로 比定하였다. 먼저 본가의 序詞와 結詞의 몇 句節을 옮겨 보이면

序詞

어와 契長님저 이방하찌어스라
 이방하 찌올적의 방하노래 내 부름서
 太古적 混沌하야 穀食이 업돏더니
 神農氏 시험하야 장이짜부 텅근후에
 后稷氏 사흘보아 논밭을 분별하니
 논밭치 삼것거니 곡식인들 업살소나

結詞

治國安民은 聖上의 勳일이오
 變理陰陽은 宰相의 勳일이오
 承流宣化는 方伯의 勳일이어
 面折廷爭은 臺諫의 勳일이오
 折衝禦侮는 將帥의 勳일이오
 勸農興學은 守令의 勳일이오
 入孝出悌는 선비의 勳일이오
 務本 力穡은 백성의 勳일이오
 紡績 住食은 부녀의 勳일이오
 親將 事上은 군사와 勳일이오
 우리도 이방하 찌허내어 부모공양 하리라

와 같다. 본가도 寫本에 따라 넘나들이 있고 脫句와 함께 對句語意가 맞지 않음도 있다. 어쨌든 그 信本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 작품도 退溪作이 아닌 것이다. 儒敎에서는 “글이 곧 사람이다”라는 관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탈(Persona)을 쓰고 말하는 경우는 君臣관계(즉, 임금의 女性化)와는 드물다. 항차 退溪의 경우 자기 자신을 虛構化(방아찡는 사람으로) 해서 <방아노래 내 부르마>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治國安民은 聖上의 勳일이오/變理陰陽은 宰相의 勳일이오/入孝出悌는 선비의

홀 일이오 / 우리도 이 방히 저혀 父母供養(上典奉養) ㅎ리라」하고 의쳤을까? 李博士는 退溪先生의 後孫이요 陶山事蹟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까닭에 退溪의 詩作態度, 詩歌觀, 文學觀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고 욕심이 앞섰던 것으로 이해된다.

退溪가 贈李叔獻 詩에 경계하기를

嘉穀은 들피와 같은 잡초를 아름답게 용납하지 않나니
가는 티끌조차 오히려 새로이 맑은 거울을 더럽힌다
지나친 감정 시로 나타내는 말은 모름지기 꺾아 버리고
참된 공부에 노력하여 서로 날로 친숙하게 되기를.¹⁰⁾

라고 하였다. 李栗谷이 陶山에 왔을 때 어찌서 위의 詩로써 경계하였던가 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시골 훈장기의 習氣를 나타내어 <방하 노래를 내가 부르겠다>고 하였을까? 退溪가 이 相杵歌의 작자라면 위대한 退溪가 될 까닭이 없다. 言行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어떤 사람이 太眞(楊貴妃)이 선녀가 되었을 때 唐明皇이 보낸 使者 臨邛道士를 만났다가 이별할 때, 唐明皇에게 회답하는 내용을 소재로 삼아 詩를 지어 놓고서 평해 주기를 원하였다. 先生이 다음과 같이 비평하였다.

「양귀비의 일은 당나라 白樂天이 처음으로 허수아비 장난을 꾸민 것인데(長恨歌) 우리 나라의 魚無迹이 그것을 극구 칭찬 하였다. 대장부의 입에서는 어찌 음탕하고 추한 말을 그려낼 수 있겠는가?」

하였다. 白居易의 長恨歌와 같은 작품을 값하지 아니 하였다. 陶山十二曲을 읽어 그 格調를 새겨보면 相杵歌가 退溪作이 아님은 自明한 일이다.

근대 歷史主義의 비평가 생트 뵈브는 특히 개인의 歷史, 즉 傳記를 인용하여 文學的 현상을 관찰 해석하여 성공한 사람으로서 文學的 산물은 한 사람의 전체적 性格과 구별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개개의 작품을 줄길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작품만 단독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文學研究는 인간자체 倫理研究로 옮겨진다고 하였

10) 贈李叔獻詩, 嘉穀莫容稊熟美, 織塵猶害綾磨新, 過情詩爾須刪去, 努力工天各日親. (『退溪全集』外集 卷 1)

다.¹¹⁾ 退溪의 文學의 산물은 退溪 자신과 구별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退溪가 「詩於學者 最非緊切」(言行通錄 5) 이라한 것은 사람들이 詩에만 정신이 빠져 玩物喪志할가봐 두려워 했던 경계를 상기하면 도저히 相杵歌의 作者가 될 수 없는 것이다. 退溪의 작품이라고 強仍하는 것은 년센스이다.

(3) 樂貧歌

이 「樂貧歌」는 혹은 「樂貧詞」라고도 하였는데 「靑丘永言」(서울大學本)에 그 작자를 「退溪或云栗谷」이라 하였고 前閔恭作的 「校主歌曲集」에는 車天輅의 소작으로 확인하여 「江村別曲」 혹은 「江村詞」로 적히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하여 李家源박사는 金台俊의 말을 인용하고 「雜歌」중에는 牧童歌와 歸田歌(還山別曲)의 사이에 위치한 것을 看過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退溪作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存疑를 나타내었고, 李相賢는 그의 「韓國歌辭選集」에서 栗谷作으로 기록 하였고, 慶北大 徐元燮은 退溪作으로 研究하였다. 이 작품은 作者에 대한 異說이 많아 退溪, 栗谷, 南冥, 車五山, 成大谷까지 무려 다섯 분이다. 樂貧歌란 어떤 내용의 것인가 그 序詞 부분을 인용해 보이면

이름이 슬디엄서 聖上이 바리시니
 富貴를 下直하고 貧賤을 樂을삼아
 數間 茅屋을 山水間에 지어두고
 三旬 九食을 먹거나 못먹거나
 十年 一冠을 쓰거나 못쓰거나
 分別이 업서서니 是非을 뉘 알소나
 酒酒 風味를 삭로리 뉘 잇스며
 落落 長松을 조흘리 뉘 잇스리
 歷代을 點檢하야 뉘스름 헤여보며
 만스을 다 이즈니 一身이 閑暇하다

와 같다. 일찌기 陶南 趙潤濟는 말하기를 이 樂貧歌가 과연 유명한 退溪와

11) 李商燮, 「문학연구의 방법」, 제 1 장, 역사주의 비평의 방법(探求堂, 1981), p. 10.

粟谷의 作이라 한다면 그 文集에는 보이지 안한다 하더라도 그 作家의 이름만이라도 古來 詩歌 評論家의 입에 올랐을 듯한데 아직 寡聞하여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¹²⁾하고 作者未詳에 두었다. 徐教授가 이를 속단이라고 책하였으나 이 樂貧歌도 退溪作이 아닌 것이다.

“이몸이 쓸데없서 聖上이 바리시니 / 富貴를 下直하고 貧賤을 樂을 삼아 / 數間 茅屋을 山水間에 지어두고 / 三旬 九食을 먹거나 못 먹거나”의 발상부터 退溪의 학업과 몸 가짐과 거리가 멀다. 退溪는 聖上의 버림을 받은 일도 없거니와 三旬九食을 걱정한 일도 없었다. 이같은 것을 習氣의 村訓 長作이라고 한다.

(4) 勸義指路歌

이 勸義指路歌가 退溪作으로 발단된 것은 世間에 유포하는 聖學十圖의 한 筆寫本 끝에 편철되어 있었던 작품일 뿐 아니라 소장자의 後叙가 그 근거가 되었다. 後叙의 原文은 다음과 같다.

「自天地肇判之後 一理渾渾 大道具焉 方是時也 群聖繼作 人不言而道自明…愚偶閱弊簡 得是辭於遺卷之中 伏而讀之 不覺其心悅 而誠服也 其所感發者 其所興起者 如侍函丈 耳提面命也…豈後學之泛泛看過哉 雖以歌詞 見於後世 先生之憂世俗而惠後學者 亦深且切矣」.

위가 지금까지 인용되어 온 전문이다. 쉽게 이해를 위하여 의역을 해보 이면

천지가 啓判한 후로부터 한 이치가 혼돈하여 大道가 갖추어졌으니 그 때에 있어서 여러 聖人이 이어 일어나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道가 스스로 밝아졌다… 내가 우연히 떨어진 상자를 해쳐보다가 이 가사를 남은 책 속에서 발견했다. 삼가 읽으니 心悅誠服함을 깨닫지 못해 그 感發 興起함이 친히 函丈을 뵈서 귀에 대고 말해 주고 얼굴을 보면서 가르쳐 주는 것과 같았다. 어찌 후학이 예사로 보아 넘기겠는가? 비록 가사를 후세에 보이기는 했으나 先生의 세상을 근심하고 후학에 은혜를 줌이 역시 깊고 간절하다.

와 같은 뜻이다. 이 後叙의 내용을 깊이 검토해 보면 後叙의 撰者가 발문

12) 趙潤濟, 「韓國詩歌史綱」(1954년, 乙酉文化社), p. 292.

했을 때 「聖學十圖」와 가사 「勸義指路歌」는 편철된 것이 아니고 따로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後叙 全文中 앞 부분이 앞서서 聖學十圖를 읽은데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은 이 가사를 “남은 책 속에서 발견”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後叙의 撰者가 聖學十圖 끝에 옮겨 筆寫한 뒤에 후서를 지어 붙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이 「勸義指路歌」의 작자를 최초 退溪作으로 기록한 사람은 後叙의 撰者인 것이다. 이 撰者가 聖學十圖와 함께 발굴하였기 때문에 또한 「勸義指路」라는 표제와 관련지는 나머지 退溪의 작품으로 본 것이다. 현재 流布間의 指路歌類가 한두 편이 아니고 각각 異本들에 대하여 退溪, 南冥, 栗谷 등이 작자로 등장되고 있음을 보거나 이것도 한번쯤 검토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면 「勸義指路歌」의 작자를 退溪로 比定한 것은 後叙의 撰者에게서 비롯되어 지금까지의 論者는 그것을 盲信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序詞와 結詞의 數句씩을 옮겨 보이던 다음과 같다. 序詞 부분인 初句節이

이보소 사람들과 이너말 들어보소
한길논 어딴두고 斜路로 가노스다
堯舜적 닷근길이 비부터 일넷거든
너희논 무스일노 斜路로 드키시며
仲尼적 늑픈날이 이제도록 밧갓거든
너희논 무스일노 밤으로 단이논다
仁義로 길을삼고 五倫으로 집을삼아
이길을 일치말고 저 집으로 니고시라

와 같다. 그리고 結詞 부분을 옮겨 보이면

처음의 이걸들제 비계 ㅅ야 두진마는
人心이 翻覆 ㅅ야 物慾의 못쳐있다
門前을 모라거든 遠路를 어어알리
物慾의 거치실위 별쓰견 마라스라
行裝을 고쳐 초려 시마운 머거스라
銘心 ㅅ야 성간 ㅅ고 刻骨 ㅅ야 잊지마라

잘가노라 닳지말고 못가노라 止마라
 그림스물 도라보와 말을느라 니거스라
 흐르는 물이되어 찬후의 니거스라
 쌀양식 다막저던 德으로 니거스라
 짐픈막디 다달커던 義를집어 니거스라
 眞實로 그리가면 貴한디 만하리라
 三達德 모든길로 誠意關 초가서
 伊川의 비록쉬워 智水로 건너서어
 明道에 곁돌몰어 가다가 저물거던
 晦庵의 들어자고 沂水의 沐浴하고
 春服을 쓸쳐입고 舞雩의 바람쏘여
 曾點을 쓰라가면 數仞牆 도라들어
 杏壇의 올오리라 나도 첫길이라
 仔細히 모르면서 남조차 가라치기
 서편듯 軒前마난 平生의 다닌길을
 물너라 호로손가 가다가 알아만나
 다시무려 니거스라.

와 같다.¹³⁾ 序結뿐만 아니라 전편을 통해서 도저히 退溪作이 아니거니와
 “이보소 사람들이 / 이너말 들어보소 / 흥길는 어디두고 斜路로 가느스다”부
 터가 역시 退溪先生의 學問의 主眼과는 너무나 다르다. 비록 文學的인 詩
 歌라 하더라도 退溪의 詩歌觀은 德을 닦고 학문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退溪가 月川 趙穆에게 보낸 편지에 「자세히 그대의 詩
 를 살펴보니 근래에 장족의 진보가 있었고 취미를 터득하였으니 즐거할만
 하다. 다만 그 가운데 과장을 나타내고 자부심을 가지며 스스로 기뻐하는
 모습이 없지않고, 겸허하고 물러서며 온후한 뜻이 적으니 이렇게 나아가
 서 그칠줄 모른다면 끝내는 인격을 닦고 학문에 나아가는 데 더러 방해가
 될는지 모르겠다」¹⁴⁾고 경계 하였다. 學者가 만약 「誇逞矜負」(과장을 나
 타내고 자부심을 가짐)하는 태도가 있다면 곧 말이 실행보다 앞섬을 면치
 못할 것이다. 結詞 부분에 “나도 첫길이라 자세히 모르면서 / 남조차 가라

13) 本歌의 철자는 異本에 따라 다르므로 對校는 물론, 당시의 철자도 아니기 때문에 작품의 校勘을 거쳐 현철자법에 의한 正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 「退溪文集」卷 22 與趙士敬書

치기 서젠듯 호전마난／平生의 다년길을 물너라 호로손가／가다가 알아만
나 다시 니거스라”하였다. 儒學의 性格이 실천적 체득의 원리로 공부하는
것이다. 退溪의 學問은 居敬窮理로서 집약될 수 있다.

林基中은 그의 「朝鮮朝의 歌辭」중 勸善指路辭의 解題에서

李滉이 後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教訓歌辭로, 지은 연대는 미상이다.
이 작품은 南冥 曹植의 작으로 되어 있는 雜歌本 指路歌와 大同小異하다. 退
溪와 南冥은 동갑이며 嶺南의 巨儒로 雙璧을 이룩했기 때문에 南冥의 指路歌
의 한 異本이 退溪의 作으로 전하는 것이 이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筆寫本 聖學十圖에 붙여 실린 勸善指路辭는 145行 292句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退溪先生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를 따른다.¹⁵⁾

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聖學十圖」끝에 편철된 것을 근거로 하
였거니와 또한 雜歌本의 指路歌도 南冥의 작품인지 확실치가 않다. 「指路
歌」와 「勸善指路歌」나 거의 동일한 작품인데 洪萬宗의 旬五志에 「권의지
로가」는 曹南冥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필자의 생각에는 曹南冥의 소
작이 아니다. 모두 그것을 천착하지 않고 한두 사람의 附會之說을 거듭
인용하여 前非를 굳혀 놓았을 뿐이다. 「勸善指路歌」중에

이보소 사람들과 이니말 들어보소
한길논 어디두고 斜路로 가느스다
堯舜적 닷근길이 네브터 일벗거든
너희는 무스일노 斜路로 드러시며
仲尼적 늑흔날이 이제도록 말갓거든
너희는 무스일로 밤으로 단이논다

등은 虛勢요 習氣이다. 굳이 退溪作이라고 강잉하는 소견은 退溪의 學問
精神을 이해코자 노력한 바가 없는 때문이다. 知行並進을 생활 신조로 삼
은 退溪야말로 一言一句의 文字를 함부로 表出치 않았던 것이다. 退溪가
그의 門人, 弟子, 朋友, 子姪 들에게 준 편지를 묶은 自省錄에서 보면 그
主敬無適한 태도가 항상 부족한 듯 겸양 하였는데 「권선지로가」의 習氣의
文體는 退溪의 文學氣味가 아니다.

15) 林基中, 「朝鮮朝의 歌辭」(1979. 2. 成文閣), p. 57.

5) 琴譜歌

최초 「琴譜歌」를 退溪의 작품으로 소개한 것은 鄭鈺東(전 慶大教授)에 의해 경북 若木에서 발굴한 資料이다. 이것의 加添本이 李相寶의 「韓國歌辭選集」에 등재되고 또한 徐元燮은 退溪作으로 강작히 比定코자 退溪年譜를 옮겨 병렬하였을 뿐 文獻과 本文의 고찰이 전혀 없었다.

대개 流動文學인 歌辭은 많은 筆寫本들이 유모되다가 讀者에 의해 作者를 比定한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 작품과 작자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가장 중요하다.

이 琴譜歌의 退溪作 比定 缺格을 밝혀 보이면, 첫째 筆寫者인 申意均에 대한 學的 信憑性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 歌中에 다음과 같은 誤記가 발견되는 점이다.

申氏本의 誤記	校正 (李東英)
1) 音律을 어이알며	音義를 어이알며
2) 窮天 地理을	窮天之理를
3) 民心을 揣度하야	民心을 忖度하야
4) 절로 죽은 石上梧桐	절로 늙은 石上梧桐
5) 三手의 交合하야	三手의 組合하야
6) 丹山 碧梧桐에	天台山 벽오동에
7) 瀟湘 斑竹枝로	瀟湘 斑竹枝로
8) 別鶴의 소리로다	靑鶴의 소리로다
9) 卿雲이 일어나고	慶雲이 일어나고

와 같다. 이같은 오기는 文理로써 바로 잡아질 수 있는 어휘라고 본다. 둘째는 本歌의 序詞 부분과 結詞 부분을 옮겨 보자.

序詞

玉樓紗窓 花柳中の 白馬金鞭 少年들아
 平生見聞 七絃琴을 알고 저리 질기느냐
 知音을 못하거던 音律을 어이말며
 博物을 못하거던 體法을 어이말리
 知音과 體法을 날다리 못하거던

窮天 地理를 大綱이나 일으리라

結詞

未來에 女樂되야 淫亂을 일삼아서
 靑樓 酒肆에 갑맞는 物件되여
 離別曲 長短調로 가는님을 挽留한다
 가거나 오거나 一天下 雷同이로다
 잊지라 大聖遺譜을 誤傳할줄 잊슬는가

와 같다. 여기서 「玉樓紗窓 花柳中에 / 白馬金鞭 少年들아 /」, 「未來에 女樂되야 / 淫亂을 일삼아서 / 靑樓酒肆에 갑맞는 物件 物件되여 / 離別曲 長短調로 / 가는 임을 挽留한다」를 退溪의 어휘로 본다는 것은 不成說이다. 혹은 무턱대고 原典이라 하고 소개되는 자료가 있는데 원본의 확정이란 참으로 어렵다. 특히 流動文學인 歌辭는 많은 필사본이 있으므로 그 信本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文學이다. 세제는 역시 退溪의 詩歌觀과 退溪의 學問이다. 위에서 보인 退溪의 학문정신 만으로도 「금보가」가 退溪作이 아닌 것을 알 것이다.¹⁶⁾

결국은 退溪의 詩歌觀과 退溪의 學問과의 관계에 있다. 실로 두려운 것은 「未來에 女樂되야 淫亂을 일삼아서 / 別靑樓酒肆에 갑맞는 物件되여 / 離曲長短調로 / 가는님을 挽留한다」의 구절이다. 이로 보면 退溪作이 아닌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退溪의 학문을 一言으로 요약하기가 어렵다. 退溪의 학문과 人間, 退溪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門人들이 기록한 말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1) 月川 趙穆은 退溪言行錄에서 이렇게 적었다.

대저 先生께서는 道義에 대해서는 존경하기를 神明과 같이 하고, 민기를 書龜와 같이 하고, 쓰기(用)를 菽粟과 같이 하고, 입기(服)를 裘葛과 같이 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거나 진실로 義를 얻은 것이면 비록 남들이 비웃더라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 學問의 正大함과 義理의 精深함과 功夫의 至到함과 操守의 堅確함과 潛心 發憤하여 道를 體得하고 德을 成就한 점에 있어서 나의 所見으로는 우리 東方에 오직 그 한분 뿐이다.

16) 拙稿, 琴譜歌作者에 대하여 (韓國文學論叢 제 4집, 1981년)이 論文에서 異本과 對比하여 상세히 썼다. 歌中에 「天不足西北이오 / 地不滿東南이라」를 正句로 한다.

2) 鶴峰 金誠一은 다음과 같이 實記에 記錄하고 있다.

晩年에 陶山山麓에 精舍를 짓고 隱居하시면서 研索·存養에 힘쓰실 때 사람들은 그 造詣의 深淺을 엿볼 수 없고 다만 그 안에 쌓인 것이 밖으로 나타나서 마음이 너그럽고 몸이 뚱뚱해지고 얼굴과 등에까지 넘쳐 흘러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實情을 볼 뿐이다. 胸懷는 洞澈하여 가을 달 어름병 같고 氣像은 溫粹하여 精金美玉 같고 莊重함은 山嶽과 같고 精深함은 淵泉과 같다 단정하고 자상하고 한거로이 편안하고 두터움고 純眞하여 안과 밖이 한결 같고 物과 我가 간격이 없다. 바라보면 嚴然하여 존경스러운 모범을 보여 주고 가까이 가면 따스하여 사랑스런 容態이 있어 비록 頑夫 狂子라도 先生의 門을 바라보면 驕氣가 저절로 사라진다.

3) 文峰 鄭惟一은 言行通述에서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先生께서 처음에 自己를 감추기에 힘써 함부로 사람과 學問을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를 잘 알지 못하였고, 그 안다 하는 사람도 혹은 先生을 詩人으로 指目하거나 혹은 俗世를 떠난 方外人처럼 녀이여 그 배운 것이 바르고 그 얻은 것이 참되어 모르는 사이에 날로 드러남이 있는 줄은 몰랐다. 晩年에 官職에서 물러나서 부터 나이 더욱 많아지고 德이 더욱 높아지고 玩心함이 더욱 高明해지고 行道가 더욱 親切해지고 自得한 것이 날로 더 깊어지고 從遊하는 이가 날로 더 불어난 다듬어야 사람들은 비로소 東方에 참된 선비가 났다는 것을 알게되어 아는이나 모르는 이나 다 退溪先生이라고 부른다.¹⁷⁾

위 세 분의 기록에 대하여 前高大 李相毅博士는 말하기를 弟子門人의 스승에 대한 行狀이나 傳記는 대개 誇張이 있기 쉬운 법이니 이 세 분의 기록을 설령 그대로 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文集에 실린 여러 角度的 글들으로써 종합해 본다면 이들의 描寫가 결코 誇張단은 아니다. 그는 확실히 「盛德」을 갖춘 大賢이었던 것 같다. 그는 人間的으로 거의 완성에 가까우리단치 知, 情, 意의 生活에 있어서 모두 진실되고 純粹했으며 人間的의 약점인 偏頗, 自私를 벗어나 中和, 中正의 경지에 가까웠다고 하였다. 또한 言行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先生雖偶吟一絕一句一字, 必精思更定, 不輕示人」 즉 선생께서는 우연히 읊조린 一絕一句라도 반드시 정밀하게 생각해 보시고 다시 고치시며 가볍게 남에게 내어 보이지 않으셨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그 作詩態度의 근

17) 李相毅, 退溪의 學問과 思想(退溪學研究, 1972년, 退溪先生四百週忌紀念事業會)

엄함을 엿볼 수 있다. 退溪의 歌辭所作이 있다면 言行錄에는言及이 있었어야 한다. 退溪의 학문적 경계, 학문적 태도 어느 측면에서 자질을 하더라도, 道德歌, 還山別曲, 牧童問答歌, 相杵歌, 樂貧歌, 勸義指路歌, 琴譜歌 등 7편의 작품과 그 작자의 기록이 하나도 信憑할 文獻이 아니오, 그것은 退溪尊崇時代의 習氣의 產物인 것이다.

V. 맺는 말

썸프 비트가 文學을 결정하는 三要因으로서 종족(race), 환경(milieu) 시기(moment)를 주장하였다. 退溪의 경우 그의 다음 말에 유의할 것이다.

즉, 문학적 산물은 한 사람의 전체 성격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개개의 작품을 즐길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작품만 단독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을 쉽사리 인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 연구는 자연스럽게 인간 자체 즉 윤리 연구로 옮겨진다.¹⁸⁾

위대한 작품을 그 보다 더 위대한 창조자에의 지표로 본 것이다. 작품은 작가를 알게 해주는 교량일 뿐이요, 비평은 작가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당연히 윤리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계속해 말하기를

한 위대한 작가의 출신 성분과 친척관계를 되도록 자세하게 확인하고, 그의 학업과 교육에 관하여서도 웬만큼 자세히 기술하고 난 다음, 다시 확정지어야 할 점은 그의 환경(milieu)이다. 그의 재능이 발견되고 형성되고 성숙하던 동시대인들의 사회 말이다. 소속집단, 교우관계, 활발한 사상의 교환 등이야말로 재능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기라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밖의 세계에의 참여를 갖게 하며, 성숙과 가치를 얻게 해주는 것이다.¹⁹⁾

썸프 비트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그의 전기적 방법이 개인 위주가 아니라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우리 國文學의 재료 중에는 원전 비평과 失品氏

18) 李商燮, 「문학연구의 방법」(1980년, 探求堂), p. 10.

19) 前掲書와 같음.

의 작가 추정은 더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위의 7편에 대한 원전과 작가의 추정도 역사주의 비평 방법인 종족, 환경, 시기의 관찰에 주안해 보면 도저히 退溪作이 될 수 없는 여건의 작품이다. 退溪의 詩歌觀이나 學問에서 용납되는 작품이 아닌 것이다.

中國文學의 批評家인 郭紹虞가 閻巷에 유포되는 작품의 대개가 村學究의 頭巾氣를 면하지 못한 文學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²⁰⁾ 崔滋도 僧家詩格을 평하여 1) 豆湯痕, 2) 捨水滴, 3) 蔬笋氣를 말했다. 즉 콩기름 냄새, 꾸정물 냄새 풀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아무리 감출래야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작품과 작자의 관계이다. 또한 「孔子通統總解」의 潘府 序文에

항차 후세에 역사를 닮은 이가 孔子世家에 용렬하고 비루한 것을 섞고, 編年者는 제가의 附會之說을 붙여서 사실에 倫序가 없게하여 恣妄한 말을 많이 했으니 어찌 이것이 聖人을 높이는 뜻이 되겠는가고 하였다.

「況後之修史者 混于世家 庸鄙之說編年者 雜以諸家附會之說 事無倫序 言多恣妄 夫豈所以尊聖人之意哉」²¹⁾

潘府의 이 말은 退溪의 歌辭所作說에 있어서 음미 할만한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退溪를 導崇하는 方法으로 虛構의인 小傳이나 「이마」(金聲翰) 같은 小說을 써서 유포시키는 것은 참된 退溪像이 아니다. 退溪 선생은 그의 自省錄 序文에 이렇게 적었다.

옛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실천이 따르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서였다. 지금 친구들과 학문을 강구하느라 서신을 서로 나누면서 한 말은 부득이한 것이지만, 이미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겠다.²²⁾

라고 하였다. 退溪의 경우 修己正德을 통한 도덕적인 人格의 완성에 두었던 그 生涯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을 虛構化 한 작품이 있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退溪에게는 오직 陶山十二曲이 있을 뿐이다.

20) 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 下卷(唯一書業中心), p. 10, 18.

21) 「孔子通紀總解」 1803년 田以采·朴致雜刊本.

22) 尹赫淳 譯註, 「退溪遺集」(1982, 玄岩社)